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 동 지 침†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여호수아의 선택 I

(여호수아 24:1 ~33)

이종윤 원로목사

여호수아는 본문에서 훌륭한 설교를 하고 있다. 그는 군인이며 지도자로서 자기 생명이 끝나는 것을 예견하고 자기가 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버릴 것을 염려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마지막 설교를 했다.

그의 설교는 매우 길었다.

그리고 결론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함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14절)고 했다. 여호수아는 추상적인 설교를 한 것이 아니다 그는 결단을 촉구하는 설교를 했다. 그는 정직했다. 자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선택과 결단을 촉구했다. 그리고 선택의 기준은 믿음으로 자원하여 진실한 선택을 하라고 했다.

I. 믿음으로 한 선택

여호수아가 가진 믿음은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도우신다는 것이다. 여호수아의 설교는 14절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논리적인 말로 회고했다. 하나님께서 고대 바벨론 유브라데스 강 저편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나안에 살게 했고 애굽에서 내려가 종살이 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준 땅으로 모세를 통해 다시 이끌어낸 여호와임을 말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도 1950년 6.25사변 때 우리 민족의 피흘리는 고통과 헤어짐의 아픔을 안고 오늘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듯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만 가지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의 승전을 자신들의 힘으로 성취한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오만과 방종으로 행했다. 그 결과 그들은 아이 성의 실패를 경험해야 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르지 않고 1인칭을 사용하여 부르고 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3절).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이보다 더 확실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시고 이루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 내어...”(3,4절).

하나님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더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

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5절).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신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케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남겨 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심볼의 아들 발라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브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헛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 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가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6 - 13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터에서 싸우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옛 일들을 기억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크게 가지라는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명령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도 못한 이방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시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의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외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14절).

오늘날 우리 민족도 반만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범한 죄와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한다.



- 2018 사명자 대회 -

주간 자율기도

총 3,036 시간!

은혜롭게 진행 중



사명자대회가 한달을 넘어 은혜롭게 진행중이다. 현재 주간자율기도시간이 총 3,000시간을 넘어섰다.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인 기도·말씀·전도 운동인 사명자대회가 지금 우리에게 더욱 간절한 것은 무너진 서울교회를 다시 세우고,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앞드려 기도해야 한다. 교회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시는 말씀을 받아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설립된 서울교회는 세계복음화, 교회전국화, 문화기독교화를 지향하며 달려왔다. 지금은 비록 어려움에 처해 세계복음화와 한국교회의 갱신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나 다시금 능히 이 사명을 감당할 날이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서울교회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명자로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름 받은 사도로 서울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다시 재건하는데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어 이번 2018 사명자대회가 성공적인 기도회가 되도록 하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 119:103)



2018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예선 : 오늘 교회학교별 진행
본선 : 11월 17일(토) 오후 1시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고자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훈련의 일환으로 성경암송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성경암송대회는 성도들의 삶에 말씀의 생활화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암송범위는 하박국 전장이며 교육1국 미취학부서는 하박국 3장이다.

오늘 각 부서별로 예선이 진행될 예정이며 본선은 11월 17일(토) 오후 1시에 진행 될 예정이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바란다.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감우균·김연하1 김은숙 1-4,5,6다락방일동 임준우
이주현·이주영 장호림 한대석 이만구·권성자 전용순
호산나찬양대 이선희 송인덕·송민섭 정인건·남영주
윤요섭·안재희 정수길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토요기도회

11. 10(토) 10:00 ~ 11:30 / 101호

수능 당일 기도회

11.15(목) 08:30 ~ 17:40 / 101호

2019년도 수험생을 위한 수능기도회가 다음과 같이 열린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란다.

1. 토요 기도회

- 일 시 : 11월 10일(토) 10:00 ~ 11:30
- 장 소 : 서울교회 101호(웨스트민스터홀)
- 인 도 : 최승원 전도사 (고등부 담당)

2. 수능 기도회

- 일 시 : 11월 15일(목) 08:30 ~ 17:40
- 장 소 : 101호 (웨스트민스터홀)
- 인 도 : 서울교회 교역자



권사회 야외 기도회

지난 10월 30일(화요일) 권사회(회장:김찬진 권사)는 베델하우스에서 90여명의 권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야외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장석남 목사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을 전하며 "성도들은 믿음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서야 이 악한 세상에서 사탄 권세와 맞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라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바람 한 점 없는 따뜻한 날씨 가운데 권사들은 베델하우스의 드넓은 잔디밭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찬양과 율동, 게임을 하며 교제를 나누었다.

특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권사들은 더욱 힘써 기도할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서울교회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사명

장윤기 집사 (유년부 부장)

회사 동료 중에 도봉구의 개척교회에서 유초등부 부장으로 섬기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부서는 친구 부부 포함해서 교사가 3명이고 학생은 10명이라고 하며 그 10명 중 6명이 6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선생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내년에도 두 자리 수 출석을 채우기 위해 매주 동네 놀이터를 돌아다니며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합니다.

작년 초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유년부 부장으로 임명 받고 고민할 때에 회사 동료가 저에게 해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럽고 힘들다고 하지만, 같이 동역하는 선생님이 30여분이 계시고 102호에서 예배드리는 80여명의 학생들이 있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데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는 재정적인 지원과 물질적인 후원이 있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소중한 자리임을 깨닫게 되고, 이런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비록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 보다 바닥에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은 장난꾸러기 아이와 말하지 않는 시간 보다 말하는 시간이 더 많은 아이들, 예배 시간만 되면 목이 자주 마르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 모두 너무나 소중해졌습니다. 잘 나오면 이

이가 주일날 보이지 않으면 왜 안 나왔을까? 어디가 아픈가? 걱정을 하게 되었고 몇 주간 빠지다가 오랜 만에 나오면 너무나 반가워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기쁜 일을 나누며 함께 웃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심방을 가고 같이 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때부터 지금까지 대략 20여년을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지금까지 뜨겁게 학생들을 사랑했던 적이 있었는지, 선생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고 또한 아파하고 위로하였던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게 되었고 교회 회복되고 안정화 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산 교육을 시켜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봉사하는 직분이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교회 교사는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지우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며 교사로서 부족한 능력 또한 채워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리고 숨겨져 있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

박정선 장로 (11교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 대회를 맞아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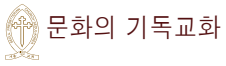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정직함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만을 사모하게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어
모든 어둠과 악의 세력과
담대히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유혹과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근심이나 그 어떤 환란 가운데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마귀의 울무에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길 힘쓰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너무도 어둡고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입니다
협한 세상 살아 갈 때에
우리 서울교회의 하나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옵고
어두운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은숙 전도사 (영·유아·유치부 지도)

문화의 기독교화를 위한 교회학교의 분투

- 들불처럼 번지는 할로윈파티 (Halloween party) -

10월 31일은 종교개혁기념일이었습니다. 망치를 들고 95개조 반박문 앞에 서 있는 루터의 비장한 표정을 보면, 피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10월31일, 매년 같은 날짜인 이날을 전후로, 요즘 교회 밖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약 10여년 이전부터 동부 이촌동, 강남권 유수의 영유치원들을 시작으로 할로윈파티는 들불처럼 번지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할로윈파티를 '분장 놀이' 정도로 희화하여 거부감 없는 매력적인 파티로 성대하게 진행하기도 하고, 여기에 상술까지 더해져서 10월31일 전, 약 한달 동안은 귀신 분장을 위한 의상, 도구, 음원, 먹거리, 선물 등이 온갖 쇼핑몰을 통해 부모님과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래 어머니 모임들에서는 'Party' 라는 단어가 주는 이국적인 매력 때문에 경쟁이라도 하듯 이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

다.

할로윈의 유래와 내용을 알면서도 자녀가 다니는 교육 기관에서 공적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거북한 마음이지만 어쩔 수 없이 파티를 준비하고 참석하는 기독교인 가정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 밖 유아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10월31일의 풍경입니다.

서울교회 영유아유치부 교사들은 이 악한 문화에 우리 자녀들이 물들지 않도록 강력하게 저항하며 간절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10월31일을 전후로 하는 이 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높은 호박과 검은 망토를 뒤집어쓰는 대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뛰놀고 뒹굴며, 신앙공동체를 통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신앙의 계대를 잇는 다음세대들과 헌신하시는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로 함께 하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살전5:21-22)

제 11회 천사들의 음악회

사랑부는 지난 3월 9일 이후 예배 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대예배를 함께 드리다가 7개월 만에 고등부의 양해를 받아 사랑부 자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오랫동안 자체 예배를 드리게 된 사랑부 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며 이 날 매년 진행하던 '천사들의 음악회'를 약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날 심우진 목사님은 '천상의 칸타타'라는 제하의 설교를 하였고, 예배 후에 매 주일 연습해 왔던 사랑부 합창단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예수 이름으로'를 찬양 발표하고, 워십 찬양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을 발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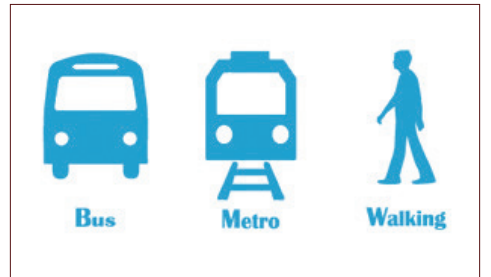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11월4일	주일	요 4-5		겔 41-48	
11월5일	월	요 6		단 1-5	
11월6일	화	요 7:1-8:20		단 6-12	
11월7일	수	요 8:21-9:41		호 1-14	
11월8일	목	요 10-11		을 1-3, 암 1-9	
11월9일	금	요 12-13		읍, 온 1-4, 미 1-7	
11월10일	토	요 14-16		나 1-3, 합 1-3	



동 정

■ 금주의 식사 : 장조림과 과일샐러드
양춘경 장로 이인숙 권사 가정 (은혜중에 장례를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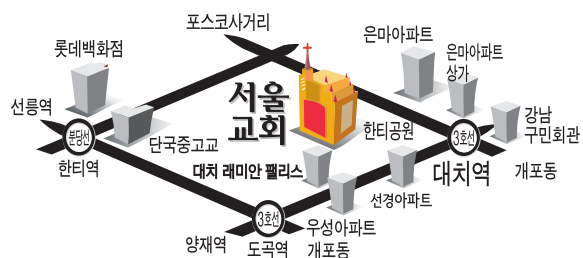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학교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3.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